

PC-I-7. Implantium[®] 임플란트의 성공률에 대한 후향적 연구

강일현*, 채경준, 정의원, 김장성, 조규성, 채종규, 김종관, 최성호
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연구배경

국산 임플란트 중 Implantium[®] 임플란트는 sand-blasting, acid etching, internal connection, micro-thread 로 특징 지워진다. 이 중 sand-blasting, acid etching에 대한 in vivo 연구는 1990년 처음 발표되었으며 Buser 등과 Cochran 등은 표면을 SLA처리한 임플란트가 다른 표면처리를 시행한 임플란트에 비하여 골-임플란트 접촉이 더 빠르다고 보고하였다.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Implantium[®] 임플란트에 임상적 생존률을 단기간이나마 조사 연구하여 이 시스템의 장기간 연구에 기여하며 국산 임플란트에 신뢰를 높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려는데 있다.

연구재료 및 방법

2003년 11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 중 Implantium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85명의 환자에게 이식된 252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연구결과 및 결론

1. 환자의 유형 및 분포에서 남녀의 차이는 없으며, 40-50대에서 64.70%의 환자수와 60.31%의 임플란트 수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.
2. 임플란트의 위치 및 분포에서 상악과 하악은 유사한 갯수가 식립되었으며, 전치부에는 35개(13.89%), 구치부에는 217개(86.11%)가 식립되어 주로 좌우측 대구치부위에 집중되었다.
3. 치아상실의 원인은 기타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서 치주염(48.81%), 충치(17.46%), 선천적 결손 (1.19%)의 순서였고, 남자의 경우에서 여자보다, 젊은 연령층보다 나이든 연령층에서 치주염으로 치아를 상실한 경우가 더 많았다.
4. 상악골은 type III (30.43%), type IV(13.04%), type II(5.31%)의 순서였고, 하악의 경우, type II(29.95%), type III(17.87%), type IV(0.97%)의 순서로 나타났다.
5. 골양은 상악에서 type C(24.15%), type B(22.70%) type D(1.93%)의 순서와 하악에서 type B(27.54%), type C(22.22%) type D(1.45%)의 순서를 나타냈다.
6. 실패한 임플란트는 3개로써 98.81%의 생존율을 보였다.